

십자가 (민수기 21:4-9)

오늘 말씀은 십자가이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로 지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많은 소망을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못된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고전 15:20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22절에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저주를 받은 인간에게는 정말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외에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3장 14-15절에 인용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대로 연결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전부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았다는 말이다. 이것은 성경메시지 전체의 근본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인간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을 잡거나 발견하면 인생 전체의 근본적인 답이 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우습게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강조하고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거나 바보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나중에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된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나? 지옥가버리는데.. 완전 바보인 것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알고 노벨상 수백개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주 바보인 것이다. 죽어보면 아는 것이다. 살았을 때에는 입이 있다고 오만 소리 다 한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간단하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것을 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을 안 것이다. 지옥이 있다. 그래서 고전 1: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멸망하는 자들이 바보이다. 땅의 것 다 알아도 죽어서 멸망해 버리는데, 바보지. 그런데 이 바보가 그 멸망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이다. 굉장한 공부를 해야 되고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한 것이다. 지옥이 있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한번씩 갔다 왔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 보면 아주 참고가 된다. 세상에는 좋다고 말하는 것이 많이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런데 죽음을 피할수 있는 답을 가진자가 어디 있는가? 아무도 없다.

석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떤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석가에게 와서 이야기 했다. 어찌하면 좋겠냐고. 과부가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데 죽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석가가 이야기 했다고 한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지 않은 집에서 쌀을 얻어서 뭐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답인줄 알고 그 과부는 온 동네 다니면서 사람 죽지 않은 집을 찾았다고 한다. 그 집에서 쌀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해결때까지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석가에게 가서 말했더니 보라. 다 죽는데 뭐가 슬프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어느날 스님의 간증 속에서 들은 것인데, 이

스님이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독교는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이다. 생명에 대해서. 믿어라. 영생 얻을 것이다. 내가 생명이야. 너무 간단한 것이다. 불교는 너무나 복잡하고 결국은 답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불교에서 하는 말이나 기독교에서 하는 말을 믿을수 있냐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죽어보면 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해준 것이다. 석가가 하겠는가? 소크라데스가 하겠는가? 누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겠는가? 미쳤지. 옆집 사람도 안 믿는다. 나가서 한번 말해봐라. 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백보 양보해서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다.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이야기 하셨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구원이 필요하고 부활의 약속이 필요하다. 다른데는 답 없다. 자기 스스로가 답이 없다. 석가는. 예수님 같으면 뭐라 했겠는가? 과부 아들 살려줘버렸을 것이다. 죽은 자를 한두명 살리고 귀신을 한두명 쫓아냈는가? 고쳐줘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말고는 사실 소망은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 되기 바란다.

1. 뱀

이 십자가라는 중대한 단어를 두고 먼저 볼 말씀은 뱀이다. 뱀은 아주 영적이고 상징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징그럽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를 받았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났다. 전에는 이 말씀 읽고 참 오래동안 이해가 안되었다. 뱀을 보는데 왜 사냐?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어느날 알게 되었다. 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그렇지. 니가 뱀에 물렸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 메시지만 것이다. 뱀은 사단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보고 치유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런데 뱀을 보고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 분들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뱀에 물린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 그 뱀을 바라봄으로 이 사실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해주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다. 니가 뱀에 물렸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 그러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너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하였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뱀에 물린 것이다. 인간은 뱀에 물린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못해서 저것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다음 문제이다. 그것도 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뱀에 물리기 전에는 이런일이 없다. 이것 못하고 저것 못하고 그런게 없다. 뱀에 물리기 전에는 저주가 없었다. 그래서 뱀에 물렸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그리고 그 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이다. 뱀에 물리지 않았으면 문제 안 생긴다. 육신문제도 영적문제, 경제문제도 자녀문제도 영적문제이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그 날 해결된다. 시작이 뱀에 물려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 뱀의 머리를 계속 박살내야 한다. 사실은 하나 뿐이다. 너무나 간단하고 선명하다. 뱀의 머리를 부셔야 한다. 모든 문제는 뱀의 문제이다. 오늘 니가 뱀에 물린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답이 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으로 발견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힘 없다. 우리는 옛날에 정확하게 복음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도 이해가 없었다.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어도 잘 몰랐다.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사단이나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터부시되었다.

설교에서도 이런 단어 사용하면 점잖지 않은 설교가 되었고 소위 기도원이 나 신비하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단어였고 영적 현실이었다. 그렇게도 많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사도들도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읽고도 눈에 안들어온다. 그런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도 그러면 안된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반드시 영동한 것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그러면 그리스도가 100이 아니다. 그러나 100이 아닌것만큼 종교인 것이다. 100이 아닌것만큼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고쳐야 한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너는 뱀에 물린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매일 물리고 있는 것 인정해라. 너 매일 뱀에게 물리잖아. 사실이잖아. 인정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언약 잡아. 안되도 잡으라는 것이다. 이걸 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슨 수를 쓴다. 그리하면 속기 쉬운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긴 한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어떤 형태로도 해결은 된다. 그걸 가지고 해결되었다고 하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쟁도 한번 안해보고 해결됐어? 불신자들도 그렇게 산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 해결되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산다. 거기에 대해서 본문이 하는 말이 첫째는 너 뱀에 물린거 인정하라는 것이다.

나도 귀신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다. 완전 몰랐다. 나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나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줬다. 그런데 그걸로 조금 나오니까 나는 그걸로 고칠수 있는 줄 알았다. 인간은 뱀에 물려서 그리스도 아니면 끝이 안난다. 이게 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20-30년 들었다고 하는데, 답이야 한다. 나도 완전 답 안 냈다. 사도 바울도 완전 답 난 사람 아니다. 답으로 향하여 간다. 그런데 적어도 문제를 넘어서는 만큼은 답 나와야 한다. 답 나면 문제 와도 상관 없다. 그래야 문제를 넘어서고 정복이라는 단어를 말할수 있다. 문제를 다 해결해도 계속 온다. 와도 필요 없다. 정복. 그 출발이 뱀에 물린 것을 눈 뜨고 인정하는 것이다.

2. 답

이 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였다.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두지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고 대들었다. 4절 후반에 보면 백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아마 길을 둘러간 모양이다. 빨리 가라할때는 안가고 뭐하는 지 모르겠다. 이미 끝났다. 40년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다. 모세는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가라는 데로 하는 거지. 모세는 5절에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참 대단하다. 만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 사람들이 조심을 안해서 그렇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누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원망이 많을까 하는 것이다. 흥해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 번째인가? 지지난주에는 사람이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떨어져 죽는 장면도 있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 다음날 찾아와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땅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니까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갔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 날도 땅은 가만히 있었고 햇빛이 내리쬐는 그 땅에 뱀에 나와서 사람을 물어 죽였다. 어디서 나왔겠는가? 돌맹이 모래 뿐이다. 햇빛은 내리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뱀이 사라져버렸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만 생각해봐도 능히 알수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무 심하다 싶지 않은가? 답이 안나서 그렇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답이 안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언약이 안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언약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메시지가 내 평생을 지배하고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언약이 되지않았다. 그래서 이런 터무니 없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세계복음화 답 안 나면 늘 육신적인 것에 불만 터진다. 교회에서도 이런 저런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생기고 그것이 들어온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면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들이다. 세계복음화에 답 안났다. 미국 남미 다민족 답 안났다. 그게 답이 나고 언약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육신적 어려움 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사건 일으키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것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라는거 안한다. 단지 기도할 것이다. 해결을 빨리 안 해줄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있겠지. 그러나 이런 것은 안한다. 답 났으니까. 거기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육신적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힘들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은 안한다.

하나님은 아주 잘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수준이다. 잘 따라오면 종이 된다. 그 사람은 시대적인 응답도 받는다. 백년의 응답 쉽다는 것도 거기에 있다. 내가 메시지 따라가면 거기에 백년의 응답이 있다. 우리 중에서도 이 백년의 응답에 준비되는 사람 많이 있다고 본다. 어려운 것 아니다. 세계 복음화 바뀌지 않는다. 양보 안한다. 40년간 광야에 죽을때까지 기다리면 기다렸지 가나안 가는 것 포기 안한다. 거기 따라가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인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인생 간단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결론은 니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뱀의 머리를 깨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가 이렇게 인생과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니가 그토록 원하는 육신적 회복 시작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인생을 이 메시지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교회는 메시지의 흐름이 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다. 이유는 단하나, 복음을 말하니까. 그리고 그 복음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니, 되고 안되고는 다음문제고 말을 하니, 그 교회의 메시지는 흐름을 형성한다. 발전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인 세계관 누림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발전하고 깊어지는 것이다. 나는 기도가 발전이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복음 알기 전에 기도하고 지금 영적 상태하고 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복음은 아는데 복음 안으로 안 들어갔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영적 세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내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의 메시지, 세계복음화에 맞춰서 살면된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이다.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되기 바란다.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타성에 붙으면 안된다. 매일 능력이 나타나도록 언약이 있어야 한다. 매일 응답받다는 것은 어떤지 모르고 나도 그정도로 24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한가지 말할수 있는 것은 있다. 응답은 지속이 되고 문은 계속 열릴 것이다. 그정도는 이야기 할수 있다. 매일은 아니지만 지속된다. 그리스도를 누린 자는 누구든지 이 축복을 받을수 있다. 그래서 아직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못한다. 그러나 내 미래가 어떻게 갈 거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갈거라는 방향은 잡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만큼 기도한다. 응답이 없는데 스스로 그림을 그릴수는 없다. 응답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오늘도 뱀의 머리를 깨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